

WEEKLY REPORT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72
MAY 21 2021

발간년월 2021년 5월 21일 (통권 제172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KMI, 수소 세미나 및 'Snowflake' 사업설명회 개최
- 러 소비에트카야 가반 항만 개발 사업 현황과 문제점
- 러시아, 내년부터 콜드 체인 제어 시스템 도입한다.
- 러시아, 북극 석탄 클러스터에 개발 기계·장비 투입

주요 통계

- 2021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주요 동향



KMI, 수소 세미나 및 ‘Snowflake’ 사업 설명회 개최

그림. 러시아 Snowflake 사업 추진 지역 및 모델



자료: MIPT, Snowflake 사업 설명회 발표자료

■ 러시아는 북극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북극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추진^{a)}

- ‘Snowflake’ 사업은 태양광, 풍력에너지,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연중 운영이 가능한 탄소 제로 북극연구기지(Snowflake)를 설립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으로 기지를 구축해 미래 에너지 상용화를 4차산업혁명 기술의 시험(test) 또는 시현(demonstrate) 플랫폼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 사업은 북극이사회 산하 지속가능발전 실무그룹(SDWG)이 추진하고 있는 ‘북극 수소 에너지 응용 및 시현(AHEAD: Arctic Hydrogen Energy Applications and Demonstrations) 프로젝트’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음
- 북극기지가 들어서는 러시아 야말 반도 내 바이다라츠카야 툰드라에 위치한 ‘희망의 땅’(Land of Hope)이며, 2023년 초 완공될 예정임

그림. 수소 세미나 및 Snowflake 사업 설명회



자료: KMI

■ 14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친환경 수소세미나와 Snowflake 사업설명회’ 개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나라의 ‘Snowflake’ 프로젝트 참여 추진에 맞춰 우리나라 수소 정책 및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함
- 이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외교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해양수산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 H2Korea,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한국에너지공단, 삼성물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리혁신센터 등이 참석했음
- 1부 수소세미나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수소경제 정책 동향과 과제’, 현대자동차 담당자가 ‘수소 사회 도래와 미래 비전 2030’,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러 Snowflake 참여 경과와 일장’을 주제로 발표했음
- 2부 Snowflake 사업 설명회에서는 MIPT(모스크바 물리기술국립대학교, Moscow Institute of Physics and Technology) 측이 사업에 대해 발표했음
- 2020년 6월 한리 제1차 화상실무협의 회의를 개최한 후, 올해 1월 우리나라는 러시아 측에 ‘Snowflake’ 참여 의사를 전달했고, 2월 SDG 1차 회의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나라 측 코디네이터로 확정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을 공식화했음

■ 중국 또한 러시아의 Snowflake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a)}

- 이날 행사에서 러시아 북극협력대사는 우리나라 정부에 이어 중국 정부 또한 해당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장비 공급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러 소비에츠키야 가반항만 개발사업 현황과 문제점

■ 소비에츠키야 가반(Sovetskaya Gavan)항, 터미널 현대화 및 터미널 건설 추진^{a)}

- 소비에츠키야 가반(Sovetskaya Gavan) 항만은 일 년에 약 5개월 쇄빙선을 운항하며, 항만 구역의 얼음 두께는 1m로, 항만장이 얼음 상태에 따라 선박 운항을 제한하고 있음
- 1993년 개항 이후,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해상 터미널 운영자의 효율적 항만 시설 통제와 안전 규정 준수를 통해 처음으로 100만 톤 화물 환적량을 기록함
- 화물 환적량의 성장으로 인해 많은 선박회사에서 새로운 터미널 건설 투자프로젝트와 터미널 현대화 프로젝트를 시행함
- 램스탈(Remstal)사는 첫 번째 “LPG 환적을 위한 운송·환적 단지”, 두 번째 “대량·일반·액체 화물 환적을 위한 운송·환적 단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첫 번째 프로젝트의 경우, 연간 LPG 화물 최대 환적물(연중 운영 시) 100만 톤의 철도 탱크에서 LPG를 받아 중간 보관하여 아태지역 수출용 해상 가스 운반선을 채우는 “철도 탱크-보관-선박” 순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로,
- 하바롭스크 소비에츠키야 가반스키(Sovetsko-Gavansky)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러시아 정부산하 건설부(Glavgosexpertiza)에서 건설을 위한 엔지니어링 조사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 노르트 플러스(Nord+)사는 쿠리크샤(Kuriksha)만의 정박지에서 산림화물과 목재 환적에 중심을 둔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환적 단지의 화물 거래량 증대를 위해 검문소 재건, 정박지 맞은편 화물 보관 공간 개설을 통해 연간 최대 30~40만 톤의 목재 수출화물 수용과 터미널 용량 50만 톤으로 증대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음
- 해상 및 내륙 수상 교통국(Rosmorrechflot)은 공개창고의 영역, 해상 터미널 운영자 이름,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정리하였으며, 소비에츠키야 가반(Sovetskaya Gavan)항만의 정보 수정으로 길이 200m, 폭 29m의 선박의 입항 가능해짐
- 농업생산협동조합 프로스토르(Prostor) 양식업체는 마야흐나야(Mayachnaya)만에 본·보조 생산 시설을 갖춘 환적터미널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정박지에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용 대형 중량화물(KTG)도 환적을 하였는데 세베로드빈스크(Severodvinsk)에서 범용화물선 바렌츠(Barents)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용 대형중량화물(총 627.2톤으로 356.8톤

발사대(8석), 270.4톤 진공실(6석))을 소비츠키야 가반(Sovetskaya Gavan)항으로 운반하였고, 예인선 아루나(Aruna)에 의해 니콜라예프스크(Nikolaevsk)항의 바지선 “MP 2811”로 옮겨져 아무르 강과 제야 강을 따라 아무르 가스 처리 공장 정박지로 “RT-600” 예인선으로 운송된 후 특수장비에 의해 우주센터로 운송됨

■ 선박 평형수 규정 및 해상교통 관제시스템 부재, 높은 마력의 예인선 부족^{a)}

- 이 같은 개발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 항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비츠키야가반(Sovetskaya Gavan)항의 평형수 규정(모든 평형수 배출 금지)으로 선박의 적재 시간 증대와 평형수를 처리하고 선박을 정박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증대와 평형수 배출의 금지로 약 6~8천 톤의 화물을 실지 못해 인접 바니노(Vanino)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또한 바니노(Vanino)항에 있는 해상교통 관제시스템(VTS)을 이용하여 소비츠키야 가반항까지 선박 운항 관제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 별도의 해상교통 관제시스템(VTS) 구축을 통해 안정성 확보를 해야 하고,
- 높은 마력의 예인선이 부족하여 바니노(Vanino) 항에서 온 대행업체의 예인선을 사용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소비츠키야 가반 항만에 마력이 강한 예인선박의 수를 증가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강하람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wish125@hufs.ac.kr)

참고자료

- a) <http://www.morvesti.ru/analitika/1688/89547/>(2021.5.15. 검색)
- b) https://holodcatalog.ru/news/object/predstaviteli-kholodilnoy-otrasli-i-produktovogo-sektora-obsudili-vnedrenie-nepreryvnoy-kholodilnoy-/(2021.5.15. 검색)
- c) https://holodcatalog.ru/news/object/kontrol-za-kholodilnoy-tsepyu-mozhet-byt-vveden-s-2022-goda/(2021.5.15. 검색)

러시아, 내년부터 콜드 체인 제어 시스템 도입한다.

■ 러시아 냉동·식품산업 관계자, 콜드 체인 도입 방안 논의^{b)}

- 1월 26일, 추바시(Chuvash) 공화국 대표실에서 피터 체크마레프(Peter Chekmarev) 러시아 농공단지개발연합회 상공회의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리 두브로빈(Yuri Dubrovin) 러시아 냉동기업연합조합(Rossoyuzkholodprom) 이사장이 주최한 러시아 냉동·식품산업 대표 실무회의가 열렸음
- 이날 회의에는 피터 체크마레프 러시아농공단지개발연맹 상공회의소 위원회 위원장, 유리 두브로빈 러시아냉동기업연합조합 이사장, 미하일 사인브(Mikhail Sinev) 식품부문기구협회(ASORPS) 연구위원장, 게오르기 베로제로프 (Georgy Belozеров) 러시아 연구소 수석 연구원, 데니스 다비도프(Denis Davydov) 철도 교통 정보화·자동화 연구기관(NIIAS) 선임 연구원, 베로니카 다비도바(Veronika Davydova) 식품 부문 조직 협회(ASORPS) 회장 고문이 참석함
- 실무회의 참가자들은 국가 식량 안보 문제에 있어 식품 품질이 사람들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개념 아래 “콜드체인 개발을 통한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 및 제품 안전성·품질 보장”을 주제로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식품 안전을 위한 상호시스템 연속 콜드체인 도입을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국가표준, 운송규정, 위생규정,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미하일 시네프 식품 부문 기구 협회(ASORPS) 대표는 “러시아 국민들의 건강과 수명 연장을 위해 식품의 질과 영양이 가장 중요하기에 식품 운송 및 보관의 콜드체인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힘

■ 냉동·냉장 제품 손상 피해액, 연간 수천억 달러 추정^{a)}

- 미하일 시네프(Mikhail Sinev) 식품 부문 기구 협회(ASORPS) 대표는 “연속 콜드체인 도입으로 육상 냉동운송(트럭, 철도) 규정 수립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여건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며, 매장 내 식품 안전과 품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언급함
- 데니스 다비도프 철도 교통 정보화·자동화연구기관(NIIAS)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연평균 식품 생산량은 약 9000만 톤이며, 온도 조건 미준수로 인해 부패하기 쉬운 제품(부분적 또는 완전)의 손상은 15%(선진국은 손상을 -9%)로 그 피해는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함

- 2020년 6월~10월, 글로나스(GLONASS)는 식품부분기구협회(ASORPS)의 회원사들과 함께 ERA-GLONASS GAIS 기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부패하기 쉬운 제품의 운송 시 온도조절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으며, 알렉산드라 지미나(Alexandra Zimina) 글로나스(GLONASS) 차장은 국가 차원에서 콜드체인 제어 시스템이 2022년 1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표명함
- 안드레이 그레츠킨(Andrey Grechkin) 다레프트란스(Dalreftrans)사의 총 책임자는 “콜드체인 제어 시스템 도입으로 러시아 내외 식품 철도운송의 신뢰도 향상이 가능하며, 식품 수출입과 수송 증가가 기대되는 한편, 특히 러시아 극동 가공수산물 유럽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힘
- 안드레이 시도로프(Andrey Sidorov) 어드밴텀(Advantum)사의 테르모플렛(Thermofleet) 제품 매니저는 화물 소유주들이 제품 상태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에 관심 있으며, 이를 위해 현대식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하고 나섰음
- 세르게이 말로페이킨(Sergey Malofeikin) 유로서비스 그룹 설립자는 현재 러시아 구매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사는 것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냉동 온도 조절 장치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부정적이며, 사실상 점주 이외에 이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고 이를 규제하는 법규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하람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wish125@hufs.ac.kr)

러시아, 북극 석탄 클러스터 개발 기계·장비 투입

■ 즈베즈다, 연방정부 등과 공동으로 스라다사이스코예 개발

- 최근 러시아 북극권 투자 기업인 세베르나야 즈베즈다(Severnaya Zvezda)사는 프로젝트 수행 및 개발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를 타이므르(Taimyr) 지역으로 보냄
- 세베르나야 즈베즈다는 크라스노랴르스키 변경 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타이므르 지역에 스라다사이스코예(Syradasayskoe) 석탄 매장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이 회사는 새로운 기계 및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석탄 클러스터 건설 속도를 높이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
- 이 지역 개발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는 빙해역 선급인 유리 아르세네브스키(Yuri Arshenevsky) 선박에 적재되어 아르한겔스크에서 북극항로를 따라 운송되며, 타이미르스크(Taimyrsk) 반도에 5월 15일 경에 하역될 예정임
- 아르한겔스크 항만에서 화물트럭, 불도저, 롤러, 굴착기 등 약 80여 대의 기계 및 장비를 선적하였으며, 이 장비를 통해 현장에서 건설 작업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세베르나야 즈베즈다의 프로젝트는 러시아 연방 정부, 극동개발부, 극동 및 북극 개발 공사, 크라스노야르스크 주 정부와 공동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 세베르나야 즈베즈다, 석탄 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 진행

- 본 매장지에 약 50억 톤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에서는 연간 약 500만 톤 규모 탄광이, 2단계에서는 연간 약 1000만 톤의 규모의 탄광이 개발될 계획임
- 또한 프로젝트 내용에는 가공 시설 건설과 해양 석탄 터미널, 도로, 발전소, 비행장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석탄 복합단지 건설에 약 450억 루블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analitika/1688/89547/>(2021.5.15. 검색)

b) [\(2021.5.15. 검색\)](https://holodcatalog.ru/news/object/predstaviteli-kholodilnoy-otrasli-i-produktovogo-sektora-obsudili-vnedrenie-nepreryvnoy-kholodilnoy-/(2021.5.15. 검색))

c) [\(2021.5.15. 검색\)](https://holodcatalog.ru/news/object/kontrol-za-kholodilnoy-tsepyu-mozhet-byt-vveden-s-2022-goda/(2021.5.15. 검색))

그림. 세베르나야 즈베즈다 기계 및 장비 적재 및 하역



자료: <https://minvr.gov.ru/press-center/news/31931/>

■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적합 판정

- 세베르나야 즈베즈다는 스라다사이스코에 석탄 매장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평가인 ‘국가 생태 감정’ 및 ‘설계문서 및 엔지니어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State Expert Appraisal of Design Documentation and(or) Engineering Survey Results)’를 실시하여 5월 20일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 ‘본 프로젝트 시행은 북극지역 환경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에 장애물이 없어진 셈임

김은미 자료 입력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weekly_kmi@kmi.re.kr/051-797-4942)

참고자료

a) <https://minvr.gov.ru/press-center/news/31931/> (2021.05.17 검색)



주요 통계



표. 2021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9/2020 증가율
극동지역	13.1 (+11.7%)	6.1 (-7.3%)	12.27	+4.2%
북극해	2.4 (-6.4%)	5.8(-7.9%)	8.1	-9.1%
발트해	9.6 (+5.8%)	10.5 (-18.9%)	12.9	-9.1%
아조프-흑해	9.2 (+10.8%)	12.5(-14.6%)	21.7	-5.2%
카스피해	0.3 (-27.3%)	0.4 (-0.7%)	0.7	-12.4%
합계	30.8(+7.9%)	34.0(-13.6%)	69.8	-4.5%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초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라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11533/> (2021.4.22.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10029/> (2021.4.22. 검색)

표. 2021년 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186,910.3	45,973.6	1,381.78 9	546.139	188,292.0	46,519.7
25-27	광물 제품	953,108.8	5,772.7	24,918.125	38,904.199	978,026.9	44,676.9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800,000.2	4,732.6	144.49	2.359	800,144.7	4,735.0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4,650.7	51,346.3	719.854	506.992	5,370.6	51,853.3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1.1	1,203.6	2.020	23.946	3.1	1,227.5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63,392.3	4,562.2	504.417	45.307	63,896.7	4,607.5
50-67	섬유, 섬유제 품 및 신발	137.7	28,093.1	112.798	286.86	250.5	28,380.0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26,407.6	37,691.6	238.255	1,445.788	26,645.8	39,137.4
84-90	기계류	86,587.7	343,389.0	733.911	754.014	87,321.6	344,143.0
68-71, 91-97	기타	301,569.5	34,838.8	9,073.249	202.436	310,642.7	35,041.2
	합계	1,622,765.5	552,870.8	37,684.418	42,715.681	1,660,449.9	595,586.5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4.28. 검색)

표. 2021년 2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	갑각류 연체동물	75,168	190,304.43	539	2,520.92	8	23.75	-	-	75,176	190,328.18	539	2,520.92
0303	냉동수산물	66,330	100,196.02	258	1,265.58	-	-	-	-	66,330	100,196.02	258	1,265.58
03031	연어	5,584	37,797.44	-	-	-	-	-	-	5,584	37,797.44	-	-
030331	광어	103	678.79	-	-	-	-	-	-	103	678.79	-	-
030332	가자미	23	18.14	-	-	-	-	-	-	23	18.14	-	-
030339	기타 넙치류	923	722.80	-	-	-	-	-	-	923	722.80	-	-
030351	청어	18,544	11,647.24	-	-	-	-	-	-	18,544	11,647.24	-	-
030363	대구	7,182	18,337.53	-	-	-	-	-	-	7,182	18,337.53	-	-
0303670000	명태	22,492	21,615.17	-	-	-	-	-	-	22,492	21,615.17	-	-
0303893	농어	20	78.96	-	-	-	-	-	-	20	78.96	-	-
030391	알류	1,295	3,616.32	-	-	-	-	-	-	1,295	3,616.32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879	1,043.39	-	-	-	-	-	-	879	1,043.39	-	-
0304	생선 필레	4,498	13,581.85	180	642.64	6	15.69	-	-	4,504	13,581.85	180	642.64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0	1.50	17	76.73	-	-	-	-	0	1.50	17	76.73
0306	갑각류	2,996	72,763.37	53	363.76	-	-	-	-	2,996	72,763.37	53	363.76
030614, 030633, 030693	게	2,801	71,256.58	-	-	-	-	-	-	2,801	71,256.58	-	-
0307	연체동물	557	1,389.62	-	-	2	8.05	-	-	559	1,397.68	-	-
03072	가리비	0	0.00	-	-	-	-	-	-	0	0.00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552	1,368.21	22	125.54	2	8.05	-	-	554	1,376.27	22	125.54
03079	기타 연체 동물	5	21.40	-	-	-	-	-	-	5	21.40	-	-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787	2,387.78	-	-	-	-	-	-	787	2,387.78	-	-
03081	해삼	66	44.72	-	-	-	-	-	-	66	44.72	-	-
03082	성게	720	2,339.90	-	-	-	-	-	-	720	2,339.90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주: 갑각류 및 연체 동물 제외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4.28. 검색\)](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4.28. 검색))